

그림에도 불구하고 독립영화는 빛난다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창작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독립영화계의 최신 경향과 새로운 재능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펼쳐진다.

광주독립영화관은 13일부터 18일까지 6일 동안 '인디피크닉 2021 in 광주'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극영화는 물론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실험영화 등 다양한 단편 영화들을 만날 수 있다. 'K-하이퍼리얼리즘', '우리가 좋아했던 이야기', '어바웃타임', '여제에 대해 말하자면' 등 총 7개의 단편모음으로 구성했으며, 2020년 서울독립영화제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작품 25편을 소개한다.

먼저 '단편1 K-하이퍼리얼리즘'에서는 창신동의 한 복제 공장에서 옷 만드는 노동자를 해운 여성들과 그들의 세상을 조명한 이나연·조진재 감독의 '살'을 비롯해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서 살아가는 가양7단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가양7단지', 유령이 되어버린 두 연인의 일상을 표현한 단편 애니메이션 '유령들' 등을 볼 수 있다.

'단편2 허스토리, 귀를 귀울이다' 섹션에서는 엄마와의 이별에 대비해 엄마를 기록하는 딸의 이야기를 담은 '나와 승자', 가장 친밀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인 '자매들의 밤' 등을 상영한다. 단편3의 제목은 '살은 아리송송 계란말이'로 '조금 부족한 여자', '재형이는 누구를 초대했는가?' 등 총 4편을 선보인다.

이밖에 낮에 일하는 지역과 밤에 일하는 우철의 동거를 그린 '우리의 낮과 밤', 떡볶이를 자주 먹는 여자의 이야기 '파란', 10대의 성이라는 주제를 유쾌하게 풀어낸 '여름의 사랑', 1904년 영사



김유원·남소현 감독 작 '인도시 카드'

'인디피크닉 2021 in 광주' 기획전, 13일~18일 광주독립영화관 서울독립영화제 상영작 25편, 극영화·다큐 등 7개 단편으로 소개

관 건축에 동원된 스머프를 다룬 '파란 나라', 지난해 처음으로 진행된 독립영화 매칭 프로젝트 넥스트링크의 배급지원작으로 선정된 '그라아아아: 주둔하는 신' 등도 상영한다.

한편 올해로 18회를 맞은 순화상영회 '인디피크닉'은 서울독립영화제가 시기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전 국민이 독립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인디피크닉 2021 in 광주'는 섹션별로 각 2회씩 상영된다. 관람료는 회당 5000원으로 현장 발권과 사전예매(인디엔아트시네마)도 가능하며 45명만 입장 가능하다. 문의 062-222-189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가면, 가려진, 보이는 것' 타인의 시선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하용주 초대전, 30일까지 신세계갤러리

30일~9월13일 공모전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지난 1996년부터 지역의 젊은 작가 발굴·지원을 위해 '광주 신세계 미술제'를 열고 있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활동을 지원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작품 세계를 알리기 위해 개인전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2019년 제20회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수상작가인 하용주 초대전이 오는 30일까지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하 작가는 선정 당시 "그동안 다수의 전시를 통해 축적된 방대한 작업량과 일관된 주제 의식, 부단한 형식적 실험이 다다르게 한 개성적 화면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면, 가려진, 보이는 것'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타인의 시선'에서 기인한 긴장감을 개인과 집단, 사회 전반으로 확장해 표현한 회화 작품 4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하 작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주제를 지속적으로 탐구해 왔다. '보이지 않는' 상태인 'Blind'를 주제로 네 차례 개인전을 개최한 그는 이번 전시에서는 '보이는 것'에 대한 탐구를 확장한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에서는 '거대한 위장', '어느 연약한 짐승의 죽음'과 같은 초기작부터 'Blind' 연작을 비롯해 '납작한', '늑늑한', '건조한' 등의 신작을 만날 수 있다.

조선대 미술대학 한국화학과 및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화학과 졸업한 하 작가는 금호미술관 '금호 영아트리스트', 퍼블릭아트 '뉴 히어로 작가', 고양문화재단 '젊은 작가' 등에 선정됐으며 개인전 9회 개최 및 다수의 단체전 참여했다.

하 작가는 "예술 작품은 동시대에 의미 있는 '내용'이 그에 적합하고 완성도 있는 '형식'으로



'납작한 1'

표현했을 때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며 "수목 기법으로 그려낸 화면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시선에 대한 오랜 탐구를 감각적으로 전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2회 광주신세계미술제 공모전은 오는 30일부터 9월13일까지 진행된다.

광주 출신 작가와 광주에서 활동하는 작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에서는 대상(상금 1000만원), 신진작가상(상금 500만원)을 선정하며 2022년 9월 초대 개인전을 개최한다. 광주신세계미술제 홈페이지 확인.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그런 광주 또 없습니다'

광주관광재단, 제작 배포

광주관광재단은 광주의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그런 광주 또 없습니다' 시리즈 책자를 제작 배포한다.

재단이 소개하고픈 4가지의 테마 '생태관광', '예술관광', '미식관광', 'MICE관광' 중 두 번째 책자인 '예술관광'은 ▲예술여행하기 딱 좋은! 광주 ▲루브르가 멀면 광주로 오랑캐 ▲도시 예술관광 핫플레이스 ▲음식에 광주를 담다 ▲내가 그런 광주 ▲답이두면 유용할 광주 여행정보 등 여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 광주 예술여행을 소개한다.

'예술관광' 책자에는 다소 생경할 수 있는 예술여행을 일반인도 쉽게 시작하도록 4가지의 대표코스(와 함께 테마별)로 구성된 연계관광코스가 수록됐다.

또한, 직접 그려볼 수 있는 컬러링북 등 즐길거리와 함께 지역 방언을 녹여낸 소주제문구 등을 사용해 예술과 책의 조합이 주는 딱딱함에서 탈피했고, 동시에 접이식 북쪽지도도 삽입해 휴대성까지 고려해 인상적이다.

광주관광재단은 발간된 책자를 시 및 각 구청과 유관기관,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해 광주 예술여행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일상의 풍경 '청담'

판화작가 정순아 초대전, 20일까지 양림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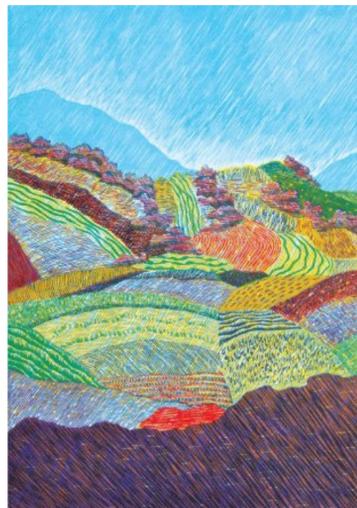
판화작가 정순아가 우리를 초대하는 '일상의 풍경'은 다채롭다.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도시인의 삶을 회색빛 공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화사한 색채가 넘실대는 가을 들뜰으로 데려가기도 한다. 목판화가 갖고 있는 투박함 대신, 온화한 색감과 손맛이 살아 있는 섬세한 칼질로 따스한 기운을 전하는 것도 작품의 특징이다.

정순아 작가 초대전이 오는 20일까지 양림미술관(광주시 남구 제2로 70)에서 열린다.

'청담(靑澗)'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그녀가 오랜 작업 기간 천착해왔던 '풍경' 소재의 다양한 연작을 만날 수 있다. 끊임없는 시도와 변화를 모색하는 그의 작품은 스펙트럼이 넓어 마치 여러 작가의 작품을 만나듯 느껴진다.

시적인 제목이 달린 '들뜰에 바람을 풀어놓아'나 '무르익어' 등 가을 들뜰 시리즈는 화사한 색감이 돋보이는 리듬감 넘치는 작품들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과 벼의 이미지는 모진 여름을 이겨내고 황금빛으로 물들여가는 가을 들뜰을 연상시키고, 힘들었던 우리 삶도 또 다른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갖게한다.

'육상가옥' 시리즈는 삶의 화두가 된 '집' 이야기를 자신만의 시각으로 풀어낸 작품이며 삶의 질문을 포개놓은 듯한 중첩된 이미지가 인상적인 '산중문답' 시리즈와 사색의 시간을 제공하는 차분한 '순응한다' 시리즈도 눈길을 끈다. 전시에는 회화 작품도 나왔다. 실경 느낌의 산수와 면과 선이 주축이 된 추상 작품이 어우러진 '벽 이야기' 시리즈다. 파스텔톤의 차분한 색감은 위로를 전하



'무르익어'

며, 화려한 색채로 표현한 작품은 생동감을 느끼게 해준다.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한 정 작가는 한국목판화협회, 광주판화가협회, www.현대미술가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지금까지 11차례 개인전과 다양한 그룹전·아트페어에 참여했다. 문의 062-675-7009.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오페라와 미디어아트가 만난 '무등등등'

김선철 작곡 이이남 작가 참여, 15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음악과 미디어아트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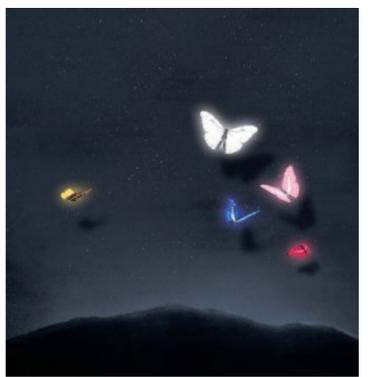
작곡가 김선철과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의 협업으로 이뤄진 콘서트 오페라 '무등등등'이 오는 15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은 지난 2018년 창단한 펠리체 솔리스트(대표 강양은) 주최로 열리며 광주시와 이이남스튜디오 등의 후원을 받았다.

작품은 '의(義)'의 뿌리를 이룬 동학혁명부터 가슴 아픈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인 5·18 민주화운동까지의 시대정신과 계층없는 무등(無等)의 세계와 민주화 염원을 담고 있다. 이번에는 광복절에 공연을 볼 수 있어 더욱 뜻깊다.

이번에 6회째를 맞은 '무등등등'은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조태일의 '겨울 소식'과 김준태 '아아, 광주여!', 이도운 '5월 농부가' 등을 포함해 총 18편의 시로 꾸려졌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8·15 광복절로 양 날개를 이룬 나비는 '의(義)'의 부활이라는 상징을 담고 있으며, 이이남의 미디어영상이라는 시각적 표현과 오페라라는 음악적 결합이 플라보르를 이뤄 관객들의 상상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임을 위한 행진곡', '겨울소식' 서곡으로 시작해 1막 '새야 새야 파랑새야', '우금치 흙', '황토길', 2막 '금남로 사랑', '대동세상, 진도아리랑', '광주만가' 등으로 이어진다.



'무등등등'

'풀씨', '광주여 영원하라', '함께 가자 우리의 이길'을 끝으로 마무리 된다.

김미옥 총감독이 해설을 맡았으며 방대진(아버지), 박수연(어머니), 김백호(아들), 최미정(딸)·이상화·신은정·김치영·이지연 등이 무대에 오른다. 또 앙상블 마주엘, Buona 합창단 등 역량 있는 음악가들이 출연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예약자만 관람할 수 있으며 오는 9월28일 이이남스튜디오에서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10-6757-6669.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대한민국소외자대상 소비자인센트 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혁신 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국제보청기